

올바른 성 지식의 필요성

더불어 사는 세상, 믿을 수 있는 세상이 더 즐겁다

'레드러본'은 고정관념을 벗고 보다 현실적인 에이즈예방을 위한 방안을 모색코자 2002년 한해를 바람직한 성문화 정착의 해로 정하여 기획을 연재한다.



임필빈 가톨릭대학교 기톨릭중앙의료원 비뇨기과 전공의, 성에세이 (아니 여지가 어디 처녀가. 동아일보사) 저자

띠리리리~ 띠리리리~ (전화벨 소리)
“필빈 언니? 저 은정(가명)이에요.” 오래간만에 평소 잘 알고 지내온 동생 은정에게서 전화가 왔다.

“은정아! 반갑다. 어쩐 일이나?”
“비뇨기과적으로 물어볼 게 있어서요, 현수(가명) 아시죠? 제 남자친구요.” “야, 너 아직도 현수랑 사귀니? 나네 진짜 오래간다.”

은정이는 6년 간 사귀어오던 남자친구 현수랑 사소한 일로 다투어서 연락을 하지 않고 있다가 한 달 만에 다시 화해를 했다고 한다.

“사실 저 현수랑 사귀는 6년 동안 성 관계도 많이 했었는데요. 얼마 전에 현수랑 섹스하려고 했는데 현수가 허벅지 부분에 피부병이 생겼다면서 저를 피하더라고요. 의사가 병을 옮길 수 있으니 성 관계는 하지 말라고 했으면서요. 한번은 혹시 하는 생각에 새벽에 일어나 현수에게 접근해서 관계를 하려고 시도했는데 반사적으로 저를 확 떠미는 거 있죠? 그 행동을 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허벅지에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평소 성

욕을 못 참던 사람이라 한 달 동안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허벅지에 피부병이 생겼다는 이유로 거부할 리가 없는데, 언니! 자꾸 성병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제 머리로 복잡하고 속이 답답해 못 견디겠어요.”

“은정아, 답답해 하지만, 성병 맞아. 현수가 너랑 헤어져 있는 동안 어디 가서 딴 짓 했구만. 너 그리고 미쳤니? 성병이란 말은 안 했다지만, 옮을 수 있으니 섹스하지 말자고 하는 놈한테 콘돔도 없이 달려들면 어떡해? 진짜 하면 옳나 안 옳나 확인해보려고 그랬어?”

“언니! 그럼 어떡해요? 난 현수랑 결혼할 생각인데 성병이라고 해도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성병도 종류가 수십 가진데. 아직 완치시키는 약도 없는 에이즈나 성기 사마귀(콘딜로마)나 음부포진(성기헤르페스) 같은 바이러스 질환이라도 걸리면 너 평생 죽을 때까지 인생 우울하게 지내야 해. 너 성병이 무슨 가보나 된다고 2세한테까지 물려줄 일 있니?”

“그럼 평생 할 때마다 콘돔 끼고 살아야 하나요?”

“어휴 답답해, 그렇게 걱정되면 같이 안 살면 되지. 무슨 걱정이니? 너무 성급히 행동하지 말고 현수에게 잘 유도해서 물어봐, 정확히 무슨 병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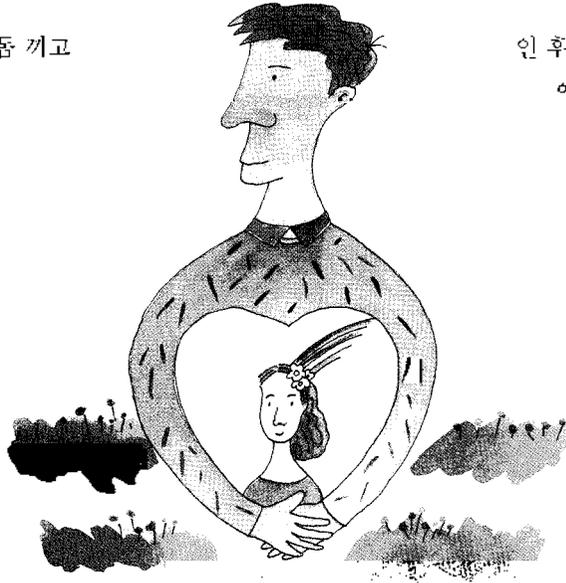
은정이와 긴 전화 대화를 하는 내내 한숨이 절로 나왔다. 스무 살이 넘었으니 법적으로는 성인이 분명한데 6년 동안 성 관계를 해왔으면서 성병이 뭔지 제대로 모르니 말이다.

성병이 무엇인가? 말 그대로 성적 접촉에 의해 전파되는 질병이 아닌가? 성 관계를 하면서 즐길 줄만 알았지 이것이 초래하는 해악에 대해서는 전혀 무지한 은정이를 보면서 우리 사회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은정이 같지나 않을까 내심 걱정이 되었다.

도둑질도 하던 놈이 잘한다고, 진정한 프로들은 위도를 할 때 상대가 누구건 간에 믿지 않는다. 항상 콘돔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곳에 두고 성병으로부터 자신이 지킨다.

이들 중 일부는 규칙적인 헌혈 등을 통해 사회 봉사(?)는 물론 자신의 건강 검진도 잊지 않는다.

이런 프로에 비하면 아마추어에



도둑질도 하던 놈이 잘한다고, 진정한 프로들은 위도를 할 때 상대가 누구건 간에 믿지 않는다. 항상 콘돔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곳에 두고 성병으로부터 자신이 지킨다. 이들 중 일부는 규칙적인 헌혈 등을 통해 사회 봉사(?)는 물론 자신의 건강 검진도 잊지 않는다.

불과한 현수는 여자친구인 은정이와 헤어진 틈을 타서 딴 짓 하다 제수 없어 성병에 걸렸지만 은정이에게 간접적으로나마 자신이 성병에 걸렸음을 알려주니 양심은 있다고 할 수 있다.

성병 환자들 중에는 부인이나 성 배우자에게 절대 안리지 않고 같이 병을 깊어지려는 무책임하고 파렴치한 사람들도 더러 있었으니 말이다.

임진 같은 성병은 치료가 되지 않고 남아있는 경우 불임 등의 장기적

인 후유증을 야기할 수 있고 에이즈에 감염된 경우는 자신 뿐 아니라 성 배우자까지 위협에 처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성병에 걸린 환자는 반드시 성 배우자에게 이 사실을 밝힐 도덕적 의무를 지니며 이를 행하지 않을 때는 의사가 반드시 성 배우자에게 통보를 해야 한다. 내가 성병에 걸리지 않으려면 금욕 만한 확실한 방법이 없었지만 요즘 같은 때에 금욕은 부용지불이나 다름없는 말

이니 그 보다는 성 배우자를 잘 선택해서 그 성 배우자하고만 성 관계를 하고, 콘돔 없이 항문 성교를 하는 행위 등은 피하며 필요할 때 콘돔을 꼭 사용하는 습관을 들여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음부포진이 생긴 경우에 성 관계를 할 경우는 콘돔을 사용해도 에이즈 바이러스에 감염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 콘돔도 100% 믿을 수도 없는 실정이고 현수 같이 믿었던 성배우자도 한눈팔기 십상인 세상에 나 자신 외에 누굴 믿어야 된단 말인가?

성적 즐거움을 누리는 것은 각 개인의 자유이나 항상 더불어 사는 세상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